

# 르네상스기 피렌체 공화주의 연구: 시민적 인문주의에서 현실적 공화주의로\*

김 경 희 | 성신여자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살루타티부터 마키아벨리로 이어지는 르네상스기 피렌체 공화주의자들의 논의를 다룰 것이다. 이는 시민적 인문주의에서 현실적 공화주의로의 변화로 파악할 것이다.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은 피렌체의 번영기에 외세의 침입을 맞았고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렌체 공화정은 고대 로마와의 동일화 속에서 정당화되었다. 여기에 공화주의적 시민은 사익보다 공공선을 우선시 하며 조국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제도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윤리적 덕목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강대국의 침입과 끊임없는 정권의 변동 속에서 국가가 나약한 것을 고민했다. 정치적 실패는 제도에 대한 문제로 그를 인도했고,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핵심으로서 자유의 이념을 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화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숙고한다. 위기 속에서 나약함을 경험함으로써 태어난 현실주의는 공화주의의 핵심 개념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 것이다.

**주제어:** 르네상스 공화주의, 시민적 인문주의, 살루타티, 브루니, 마키아벨리

## I. 서론

이 글은 서양정치사상사에서 공화주의 정치사상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피렌체 공화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역의 핵심도시로서 피렌체는 일찍이 상공업이 발달하고 시민문화가 꽃핀 공화정을 성립시켰다. 하지만 그 공화정은 내부 세력 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띠었고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성립시켜 갔다. 도시 공화국으로서 피렌체는 이탈

---

\*이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리아 북부의 밀라노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렌체를 위협해 오자 공화국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는 비록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내부의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피렌체 시민들의 공화주의적 정신을 강조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의 사회·경제적인 토대의 변화로 인해 공화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시민들간의 대립이 격화된다. 권력투쟁의 문제는 공화정 구성의 문제로 연결되고 이는 공화주의 담론의 풍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대표적인 공화정이었던 피렌체는 그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속에서 공화주의 담론을 풍부화시켰고 그것은 서구 공화주의 이론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르네상스기 피렌체 공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살루타티(Coluccio Salutati)부터 마키아벨리(Machiavelli)로 이어지는 공화주의자들의 논의를 다룰 것이다.<sup>1)</sup> 이는 시민적 인문주의에서 현실적 공화주의로의 변화로 파악할 것이다. 공화국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의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이에 따라 공화국과 공화의 문제의식을 사고하는 방식 즉 공화주의론도 변하기 마련이다. 한 국가의 대·내외적 관계에 따라 변하는 공화주의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피렌체 공화정과 그 공화주의이다. 르네상스의 격변기 속에서 피렌체 공화정은 타국과의 전쟁 및 내부 정치세력들의 역관계의 변화 속에서 공화국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사고를 해왔던 것이다.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은 피렌체의 번영기에 외세의 침입을 맞았고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피렌체 공화정을 고대 로마와의 동일화 속에서 정당화시킨다. 고대 로마 공화정과 동일화는 자유의 이념을 대외적 자립과 내부의 자유로 형성화 시킨다. 여기에 공화주의적 시민은 사익보다 공공선을 우선시하며 조국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정치적 성공 속에서 제도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윤리적 덕목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적 윤리의 강조는 마키아벨리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 강대국의 침입과 끊임없는 정권의 변동 속에서 국가가 나약해 진 것을 마키아벨리는 고민했다. 정치적 실패는 제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했고, 제도와 윤리의 문제가 공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핵심으로서 자유의 이념을 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화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이를 통해 고대 로마사를 파악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 동일화와 호소의 대상이었던 로마가 이

1) 르네상스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나제미(Najemy 2007), 뮌클러(Münkler 1999) 등 참조.

제는 현실을 비판하고 국력을 되살려내야 하는 비판적 비교의 대상으로서 로마가 된 것이다. 로마 철학자들이 설파한 윤리적 덕목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가 가졌던 힘이 문제이고, 그 기제를 지금 어떻게 되살려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자유와 윤리도 힘과 국력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 나약함을 경험함으로써 태어난 현실주의는 공화주의의 핵심 개념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공화주의는 고정불변의 이념이 아니라 공화정이라는 정치 구성체의 구체적 모습이 변하면서 달라지는 살아있는 현실의 논의인 것이다.

## II. 시민적 인문주의에서 현실적 공화주의로

### 1. 시민적 인문주의

시민적 인문주의(Bürgerhumanismus; civic humanism)라는 개념은 독일 출신의 사학자 한스 바론(Hans Baron)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이것은 르네상스의 근대적 특징을 영웅이나 개인에 초점을 두었던 부르크하르트(Burckhardt)와 대비된다.<sup>2)</sup> 용병대장이나 군주 나아가 천재적 예술가들이 보여주었던 개인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던 부르크하르트와는 달리 바론은 시민들의 집단적 능력에 주목한다. 특히 피렌체의 시민적 정치문화와 공화제에 초점을 맞추어 르네상스기의 도시 공화국에 나타났던 자유라는 시민적·공화제적 가치를 칭송한다. 공화제에서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보다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동적 삶(vita activa)을 강조하고, 대외적인 자립과 대내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의 활동을 주목한다. 특히 그는 피렌체에서 이러한 시민적 인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전제(專制) 국가였던 밀라노와 공화제 국가였던 피렌체 간의 전쟁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피렌체는 일인 군주가 정치를 독점하는 전제 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화제 국가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이다. 부르크하르트가 “독재정부와 독재자가 자의식적 개인을 출현시켜 르네상스 사회의 사상과 문화에 큰 자극”을 주었다는 주장을 펼쳤다면, 바론은 “고대

2) 부르크하르트에 대해서는 그의 유명한 저서 부르크하르트(1999)를, 바론의 논의에 대해서는 바론(1966; 1988)를 참조.

아테네와 로마 공화국의 이상과 정신을 부활”시켜 시민공동체 문화가 중심이 된 르네상스를 주목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의 공화주의를 풀루치오 살루타티, 레오나르도 브루니(Leonardo Bruni) 그리고 마테오 팔미에리(Matteo Palmieri)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살루타티는 인문주의자이자 피렌체 공화정의 수장직(1375~1406년)을 수행한 정치인이었다.<sup>3)</sup> 살루타티가 자유를 핵심으로 주장하는 공화주의를 펼친 것은 공동체의 위기를 통해서였다. 이는 특히 그의 외교적 편지나 공개적 반박문 등 공적인 호소문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공동체의 자립이라는 자유를 위태롭게 한 것은 두 번의 외침 때문이었다. 그 첫 번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Gregorius) 11세에 대항한 전쟁이며, 다른 하나는 비스콘티(Visconti)의 밀라노와의 대립이다. 우선 피렌체는 로마 교황군에 맞서는 '8성인 전쟁'(Guerra degli Otto Santi)을 수행한다. 살루타티는 이 전쟁에서 교황군에 맞서 피렌체의 자유를 옹호한다. 피렌체를 위협하는 교황은 하느님을 대신해 세속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보편권력이 더 이상 아니었다. 아버지용 유수 이후 프랑스인들에 넘어간 교황청은 더 이상 보편권력을 대변할 수 없었다. 오히려 교황군에 맞서 피렌체를 인도한 8인의 전쟁위원회 위원들이 더 성스러운 존재였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8성인 전쟁'으로 명명한 것은 피렌체의 자유에 대한 긍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살루타티는 고대 로마와 그 자유정신을 이은 피렌체를 강조한다. 아울러 고대 로마의 후손인 이탈리아의 관점에서 야만족의 후손인 프랑스와 그들에게 넘어간 교황청을 비난한다. 로마의 정신은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것을 넘겨받은 피렌체 공화국 또한 자유의 수호자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야만인 대(對)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서 자유를 수호하는 피렌체의 구도는 인문주의자였던 살루타티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당시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각 나라들에 프랑스 교황에 맞설 것을 독려하는 편지들에서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피렌체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

이탈리아는 드디어 자유를 바라며 칼과 그 힘을 다해 자유를 돌보고 있다. 그런 숭고한 목적과 가치 있는 이유로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돕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공적 자유의 수호자이자 아버지들로서 당신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실로 이와 동일한 자유애가 한때 로마인민들로 하여금 폭군정에 대항

3) 살루타티에 대한 논의는 김경희(2004) 참조.

하도록 추동하였고 군주제를 폐지하도록 이끌었다(Salutati 2014a, 3).

고대 로마의 후손으로서의 지위는 외적에 대한 독립과 자주 그리고 폭군정과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유지하는 국가에게만 가능하였고 그것이 바로 피렌체라는 것이다.

자유를 수호자로서 피렌체 공화국이라는 기치는 확장정책을 통해 피렌체를 위협했던 밀라노와의 대결에서 더 잘 드러난다. 밀라노는 비스콘티 가문의 지배가 공고히 정착된 군주국이었다. 군주국의 통치이념과 확장정책을 옹호하는 논리는 잔갈레아쥬(Giangaleazzo)에 의탁하였던 비첸차(Vicenza) 출신의 인문주의자 안토니오 로스키(Antonio Loschi)에 의해 설파된다. 그는 피렌체인들이 밀라노와 피렌체 간의 전쟁을 공화적 자유와 군주제적 폭정 간의 대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비난한다. 동시에 그는 피렌체인들이 주장하는 피렌체 공화국이 로마 공화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나아가 로스키는 일인 지배체제로서 군주제는 평화와 질서를 위해 공화제적 정부형태보다 더 나은 체제라고 주장한다. 강력한 비스콘티 군주의 지배하에 북부 이탈리아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나아가 이탈리아 전체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4)</sup> 로스키는 ‘자유’(libertas)라는 가치를 내세운 피렌체에 대해 ‘통일’(unitas)과 ‘평화’(pace)라는 밀라노의 가치를 위치지운 것이다. 로마와 자신들의 자유애를 동일시 하는 피렌체를 비난하는 로스키에 대해 살루타티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를 능가하는 천상의 재화’인 소중한 자유를 방어하는 데 피렌체인들의 지조와 끈기가 로마인들보다 더 하다는 것을 당신은 보아 왔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볼 것이다. 피렌체인들은 결심하기를 그들의 목숨을 지키듯이 무기와 재산을 가지고 기실 그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자 하며, 아울러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흠 없이 온전히 물려받은 유산인 자유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우둔한 당신은 그것을 혐오스럽다고 부른다. 당신처럼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만이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해하는 데 실패할

4) 비스콘티하의 밀라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잔갈레아쥬는 당시 지루하게 지속되고 있던 혼란과 분파주의를 종식시키고, 로마를 수도로 하는 하나 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다. 그는 이탈리아를 위해 “나타난 메시아”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Baron 1966, 37).

수 있다. 그들은 바로 - 본성이나 생활양식 혹은 그 둘 다에서 기인해서 - 자유를 사랑하거나 바라지도 않는 것 같은 롬바르디아 사람들이다(Salutati 2014c, 197-199).

이 장문의 반박문에서 살루타티는 또한 피렌체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로스키가 피렌체의 기원을 공화정 시기로 설정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렌체가 로마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은 도시에 남아 있는 로마 건축물들, 이름, 로마의 풍습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살루타티는 피렌체의 건설이 술라(Sulla)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이는 카이사르(Caesar)에 의한 피렌체 건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이었다. 공화정을 파괴하고 일인 지배체제를 건설한 카이사르가 아니라, 공화정의 시민들에 의해 피렌체가 건설되었다는 것이다.<sup>5)</sup> 자유에 기반 한 고대 로마 공화정의 시민들이 피렌체를 건설하였기에 당시 이탈리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책임자는 바로 피렌체라는 것이다.

살루타티에게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자유와 공화정의 자유를 대표하는 나라였다. 야만족인 프랑스의 침입에 대해 자유를 지켜야 했으며, 비록 이탈리아 반도의 국가지만 로마가 아닌 야만족 롱고바르드의 후손인 밀라노인들은 로마 공화정의 자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로마 공화정의 후예인 피렌체만이 자유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살루타티 외에도 피렌체의 일반 시민이었던 치노 리누치니(Cino Rinuccini) 또한 로스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그는 ‘안토니오 로스키 경의 반박에 대한 답변’ (Risponsiva alla Invettiva di Messer Antonio Lusco)이란 글에서 로마사에 대한 언급을 통해 밀라노가 군주제를 옹호하는 논리를 비판한다. 군주제적 통치의 단점은 로마가 왕정 하에서는 단지 조금밖에 발전을 못했지만 공화정 하에서는 단기간에 제국을 이루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노예로 사는 밀라노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유 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로마의 예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Baron 1966, 76-77).<sup>6)</sup>

피렌체인들이 그들의 자유를 로마 공화정의 역사에 의지해 해석하고, 밀라노와의 전

5) 살루타티의 피렌체 기원론에 대해서는 Witt, 1969a) 참조.

6) 살루타티와 리누치니 등에서 나타나는 피렌체의 자유의 개념을 당시 팽창하고 있던 피렌체 공화국의 제국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본 논문으로는 루빈슈타인(Rubinstein 1986)과 호른크비스트(Hörnqvist 2000) 참조.

쟁을 폭군 대(對) 자유를 추구하는 공화국 간의 대결로 해석한 것은 외세에 맞서 승리한 피렌체의 자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보편권에 의지했던 이전의 전통을 탈피한 것이다. 즉 황제에 의지해 권력을 정당화한 밀라노는 황제파(Ghibelline)를 대표했고, 피렌체는 교황파(Guelph)를 대변했다. 따라서 밀라노 대 피렌체는 이탈리아 내에서 두 보편권력을 대변하는 양대 세력 간의 권력다툼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1300년대 후반 피렌체가 교황군과 대결을 펼친 후에 상황은 바뀌었다. 이후 잔갈레아쾨의 밀라노에 대항한 피렌체 공화국의 전쟁은 이탈리아를 통일하려는 세력과 이탈리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대결로 해석되었던 것이다(Münkler 1982, 191-192).

하지만 살루타티는 1400년에 펴낸 『폭군론』(*De tyranno*)에서 카이사르를 옹호함으로써 공화정의 열렬한 옹호자와는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이 저서에서 폭군의 정의, 폭군살해의 정당성 여부, 카이사르를 폭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살해한 브루투스나 카시우스를 지옥의 가장 아래 부분에 배치해 벌을 받게 한 단테가 옳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로마 인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인 카이사르는 폭군이 아니며, 그를 죽인 이들을 지옥에 보내 벌을 준 단테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살루타티를 어떻게 해석하건 그가 일인 지배로서 군주제를 옹호한 것은 사실이다.<sup>7)</sup> 특히 그는 카이사르의 일인 지배를 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신의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세적인 종교적 관점에 의지하고 있다. 혼란에서 안정과 질서를 가져오는 신적인 질서로서 군주제에 대한 옹호는 자주, 독립심 그리고 자유애를 핵심가치로 가지는 피렌체 공화제에 대한 이전의 지지와는 실로 다른 것이었다.

비록 살루타티가 동요를 보이긴 했지만 중세의 두 보편권력인 황제와 교황의 권위에 전적으로 기대어 스스로의 정치행위를 파악하는 대신 이제 고대 역사와 자신의 정치체제에 대한 고찰을 수행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대 로마에 대

7) 살루타티의 『폭군론』(2014b)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논쟁적이다. 바론은 공화주의적 열정과 대비되는 이 저서에 실망을 표하고 있으며, 헤르데(Herde 1965)는 그의 비일관된 입장을 사적으로는 군주주의자이지만 공적으로는 공화주의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위트(1969b)는 살루타티가 군주제나 공화제 어느 하나를 옹호했다기 보다는 좋은 정부에 관심이 있었고 그 핵심은 법치였다고 주장한다. 데 로사(De Rosa 1980)의 경우 살루타티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군주제나 공화제를 옹호한 상대주의자로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블랙의 논문(Black 1986) 참조.

한 새로운 해석과 그 가치로서 자유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피렌체 공화국을 본격적으로 드높인 것은 바로 살루타티의 뒤를 이은 브루니였다.

브루니는 우선 『피렌체 찬가』(*Laudatio florentinae urbis* 2002)라는 작품을 통하여 피렌체 공화국이 비스콘티가의 밀라노를 막아내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근거 지운다.<sup>8)</sup> 그것은 피렌체가 자유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공화정의 진정한 후손이고, 자유에 기반 한 공화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렌체 찬가』에서는 우선 피렌체의 물리적 우월성을 칭송하면서 피렌체의 현명한 입지, 그 도시의 장관, 건축물 그리고 청결함 등에서 타 도시의 추종을 불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피렌체가 로마공화정의 후예임을 강조하면서 그 기원의 우수성을 언급한다. 공화정 시기의 시민들에 의해 세워진 피렌체는 선조의 자유애를 물려받았기에 전제정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렌체가 이탈리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역량이 언급된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동맹국을 도와주고 전제정의 침략에 결연히 맞선 피렌체의 힘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피렌체의 정치체제와 관련되는데 그것은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는 법제도를 구비하였기 때문이다.<sup>9)</sup>

브루니가 『피렌체 찬가』에서 공화정을 칭송하는 핵심 논지는 고대 로마의 정당한 후손이라는 것과 그것에 합당한 피렌체 공화정의 능력이었다. 우선 “온갖 위대함과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기에, 단순히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대의 모든 도시를 능가하는” 피렌체는 그 기원에 있어 로마인 특히 로마 공화정의 시민들에 의해 건설되었다(Bruni 2002, 37). 로마 공화정은 탁월한 시민들에 의해 획득한 위대함이나 영토 그리고 힘 등에 있어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피렌체는 바로

8) 소위 ‘바론테제’라 불리는 시민적 인문주의의 핵심인물은 바로 브루니이다. 브루니가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예전의 문화적 고전주의와 관조적 삶을 이상으로 삼는 경향에서 벗어나 정치와 역동적 삶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적 인문주의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론테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바론이 당시 인문주의자들의 수사학적·문화적 표현을 현실로 오해했다는 시겔(Siegel 1966)부터 시민적 인문주의는 인정하되 중세 도시국가 공화주의의 연속선에서 파악하는 스킨너(Skinner 2004)까지 그 해석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논문이 필요할 정도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시민적 인문주의의 담론 자체는 인정하고자 한다. 시민적 인문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헨킨스(Hankins 2000) 참조. 브루니에 대한 논의는 진원숙(2005)과 김정희(2013) 참조.

9) 브루니의 공화주의와 그의 『피렌체 찬가』에 대해서는 바론(1966) 3부와 바론(1988) 4장 참조.



이러한 “로마인들의 통치력이 가장 크게 번성하고, 다른 강력한 이민족의 왕들과 호전적인 세력들이 모두 로마의 힘과 덕성 아래에 정복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건설”되었던 것이다(Bruni 2002, 42). 그런데 피렌체가 세워졌던 이 시기는 “공화정 로마의 암적 존재”였던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 같은 이들이 로마인들의 자유를 파괴하지 못했던 때이다. 이러한 로마의 자유정신을 물려받았기에 피렌체는 여전히 자유를 구가하고 전제정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브루니는 로마의 역사를 공화정의 단계와 전제정의 단계로 나누어 파악한다. 전자에서는 자유와 힘 그리고 위대함이 만개하지만, 후자에서는 그것이 소멸되고 살육과 폭압 등 온갖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피렌체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로마 공화정의 유산이라는 것을 브루니는 『피렌체 찬가』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로마의 정치적 힘과 자유, 그리고 천재성이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특히 위대한 시민들과 더불어 로마가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피렌체가 처음 건설되었다 [...] 타키투스가 말했듯이, 공화국이 독재자 한 사람의 손에 예속되면서 “이 모든 뛰어난 정신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가 로마 제국의 모든 덕성과 존엄성이 파괴된 후에 건설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시를 건설한 이들에게서는 어떠한 위대함이나 뛰어난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uni 2002, 48).

피렌체가 자유를 사랑하고 전제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의 시초에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상의 용맹과 덕 그리고 위대함은 후손의 능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조상은 위대했지만 후손은 보잘 것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브루니는 피렌체의 위대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공화정 국가들의 대표국가로서 주변의 동맹국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밀라노 공국에 맞서 이탈리아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냈던 피렌체의 자유애자 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에 대한 열정은 피렌체의 정치체제 구성에도 구현되어 있었다. 브루니는 『피렌체 찬가』의 마지막 장에서 피렌체의 내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와 자유이다. 피렌체의 모든 법과 제도는 바로 이 정의와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브루니는 말하고 있다. 정의의 실현은 권력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선에 복무하는 법의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렌체

에서는 어느 누구의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Bruni 2002, 74). 이를 위해 피렌체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피렌체 시민이 아니라 외국인들로 사법관을 충원하였다. 이는 자유를 위해서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최고 행정권을 쥐고 있는 관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고 위원회의 구성을 한명이 아니라 아홉 명으로 한다거나, 임기를 1년이 아닌 2개월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견제와 짧은 임기를 통해 권력독점의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체를 두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숙고와 협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결정은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는 시민위원회(*populare consilium*)와 코뮌위원회(*commune consilium*)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문제는 “전체 시민 공동체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도화 한 것이다(Bruni 2002, 76).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배제하는 자유의 실현이 바로 피렌체의 공화제적 정치제도가 구현한 것이었다.<sup>10)</sup>

『피렌체 찬가』에서는 권력의 독점에 대한 견제와 법치를 통한 시민들 간의 평등과 자유가 공화정의 핵심임을 강조했다면, 『난니 스트로찌에 대한 추도사』(*Oratio Funebris ad Nanni Strozzi* 1987)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자유를 공화정의 핵심으로 고양시킨다. 피렌체 출신으로서 밀라노와의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전사하게 된 피렌체 연합군의 장군인 난니 스트로찌의 추도사에서 브루니는 『피렌체 찬가』의 주제들을 다시 한 번 불러낸다. 하지만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연설을 모방하여 지은 이 추도사에서 브루니는 피렌체의 자유에 이전과는 다른 것을 추가한다. 예전의 법 앞의 평등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강자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에서 이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나타나는 것이다.

브루니는 먼저 스트로찌가 전장에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가족보다 조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족이나 그 어떤 사적인 관계보다도 우선시되는 조국은 바로 위대한 피렌체였다. 브루니는 그들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로마인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로마 공화정의 후예로서 뛰어난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이탈리아 타 도시들의 모범이 된 피렌체에 대해 언급한다. 이어 브루니는 공화국의 헌정체제에 대해 언

10) 브루니는 피렌체의 내정(內政)에서 정의를 형평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개입과 법의 공평한 적용을 통한 약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힐 때 정부가 개입해 강자나 부자에게 더 많은 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Bruni 2002, 81).

급하는데 그 핵심은 모든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이었다. 그 자유는 “모두에게 동등하며, 오로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다(Bruni 1987, 124). 자유와 평등은 권력자들의 오만과 위선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분위기 속에서 귀족은 인민으로 변화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정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 폭력과 해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공평이라고 브루니는 설파한다(Bruni 1987, 125). 브루니는 자유가 실재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법적 평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능력의 추구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정부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공직에 참여할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되고, 그것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때 그 도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렌체의 정치인이자 인문주의자들이었던 살루타티와 브루니는 피렌체를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탈리아내 공화정의 적자로 규정짓는다. 이는 처음에는 외세의 침입에 대처하면서 대외적 자립으로서 자유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이어 밀라노 공국이라는 일인 지배체제와의 대결 속에서 독재정인 밀라노 대(對) 자유 정체인 공화정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내세운다. 자유를 옹호하는 공화정으로서 피렌체를 근거 짓기 위해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로마의 역사, 특히 공화정의 역사에 의지한다. 로마 시민의 공화정 대(對) 카이사르의 독재정의 구도로 로마사를 해석하면서 이는 당시 이탈리아의 공화정 피렌체 대 독재정 밀라노의 구도에 대입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피렌체 공화정의 정치제도를 분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권력자의 권력독점과 전횡에 대해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법치국가로서 공화정을 주장했던 것이다. 법에 의한 시민들의 자유보호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 해석에 기반 한 공화정 분석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외적과의 끊임없는 대치과정 속에서 조국의 우선성을 주장하고 그것에 복무하는 시민의 의무를 강조한다. 나아가 시민들이 정치권력에 참여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개념을 가지고 공화정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sup>11)</sup>

이후 전쟁이라는 혼란을 거치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에 공화주의적 시민교

11) 스키너(2004, 213-222)는 피렌체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의 자유를 다음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독립과 자치, 둘째, 정치 참여, 셋째, 로마 공화정을 로마 제국보다 더 낫게 보는 것.

육에 대해 사교 했던 사람이 바로 마테오 팔미에리이다.<sup>12)</sup> 그는 1430년대 『시민적 삶에 대하여』(*Vita civile* 1982)를 저술한다. 피렌체의 시민적 인문주의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 책에서 팔미에리는 공화주의적 시민의 모범상을 정초지우고 있다(Münkler 1993, 576). 이는 시민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핵심에는 국가 혹은 공동체에 복무하는 시민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올바른 시민은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시민적 덕성이다. 조국애야말로 시민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이다. 이를 통해 한 국가의 자립과 안녕은 보장되는 것이다. 팔미에리는 이를 위해 자신의 저술 마지막 부분에 단테를 등장시킴으로써 조국에 봉사한 시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말하고 있다. 캄팔디노 전투에 참여해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단테 앞에 전투에서 사망한 그의 동료가 나타난다.<sup>13)</sup> 그는 단테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한 시민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음을 이야기 한다. 팔미에리는 공동선에의 복무라는 시민적 삶의 정치화를 통해 공화주의적 시민윤리를 정초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가족들보다 조국이 우선했고,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는 공적인 이해관계나 공동선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다.<sup>14)</sup>

공화국의 생존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외세와 싸웠던 피렌체의 인문주의자들은 고대의 재생을 이용한다. 그것은 고대 로마를 부활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야만족의 후예였던 교황군과 밀라노의 군주에 대항하여 로마 공화국의 전통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는 이전의 로마 수용 전통을 바꿔놓는다. 보편 제국을 이루었던 황제정의 기초자로서 카이사르를 칭송하던 것을 이제는 공화정의 전통을 강조하게 된다. 로마 공화정의 후예로서 그 시민들에 의해 건설된 피렌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자주와 자립으로서의 자유와 그것을 수호할 수 있는 힘을 가능케 했던 피렌체 시민의 자유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기원과

12) 팔미에리에 대해서는 바론(1988) 1권, 루빈슈타인(1982), 북(Buck 1965) 등 참조.

13) 이는 브루니의 단테에 대한 평가를 이어 받은 것이다. 브루니는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의 명망 높은 학자들인 단테와 페트라르카를 비교평가하고 있다. 단테는 페트라르카와 달리 전쟁에 참여하는 등 조국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에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브루니(1972) 참조.

14) 북(1987)의 책 282-283쪽 참조.

정체성을 로마 공화정과 공화제적 자유 속에서 찾았던 피렌체의 시민적 인문주의는 피렌체 국내 정치상황이 소수 가문들의 지배, 그 중에서도 메디치 가문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면서 점차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피렌체 시민적 인문주의가 드러냈던 공화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 마키아벨리에게서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로 인해 마키아벨리는 전혀 다른 공화주의를 보여주게 된다.

## 2. 마키아벨리의 현실적 공화주의

피렌체 시민적 인문주의가 보여준 공화제 논의의 특징은 피렌체를 로마 공화정과 동일성속에서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피렌체가 건설된 기원을 로마 공화정 시대로 상징하는 것과 관련된다. 공화정의 시민들이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기에서 국난을 극복한 피렌체에 대한 자부심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피렌체는 그 외양과 내적 구성에서 번영을 이루고 있고 그것은 로마의 적자이기에 가능했고 피렌체 자신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브루니와 팔미에리의 경우 피렌체 부흥, 특히 문화적 융성은 그 정치적 힘의 번영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1494년 프랑스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침공 이후 이탈리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sup>15)</sup> 이로 인해 잦은 정변과 혼란에 빠진 피렌체의 정치인 마키아벨리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로마와 피렌체는 같을 수 없었다. 로마는 피렌체와 동일화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모방의 대상이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시민적 인문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도록 만든다.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이 피렌체의 국력을 로마에 견주어 정당화했다면, 마키아벨리에게 피렌체는 무력한 존재였다. 전자는 로마의 후예로서 피렌체에서 로마의 것을 찾으려고 했고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서 로마의 것을 찾을 수 없었다. 로마는 피렌체를 비판하기 위한 모범으로 작용했던 것이다.<sup>16)</sup>

우선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공화정 시기 건설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2003, 이하 『논고』) 1권 1장에서 마키아벨

15) 이에 대해서는 레이븐(Laven 1995) 참조.

16) 이에 대해서는 루빈슈타인(1982) 177-182쪽 참조.

리는 피렌체의 기원이 공화정 시기이든 황제정 시기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황제정 시기에 피렌체가 건설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피렌체가 건설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황제의 호의에 의존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기존 전통과의 단절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논고』의 서문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마키아벨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작업을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당시 고대의 문물을 부활하려는 르네상스기의 전형적인 움직임이 많이 부족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고대의 정치를 말로만 찬양할 뿐 제대로 본받지 않고 있으며, 역사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고대의 역량”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3, 67-68).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는 고대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피렌체사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된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Istorie fiorentine 1988) 서문에서 브루니의 역사서술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피렌체가 타국과 벌인 전쟁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했으나 정작 국내 정치의 내분과 시민들 간의 분란 그리고 그것의 귀결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1988, 6)는 시민적 인문주의자들과 다르게 피렌체의 정치를 보겠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카이사르를 명확히 폭군으로 파악한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고 공화국의 군대를 사병화하여 자유를 빼앗아간 인물로 평가된다.<sup>17)</sup> 이는 카이사르를 제국의 정초자나 신적 질서를 수행해 나간 긍정적 인물로 파악한 이전의 관점을 벗어난 것이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군주적 권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는 건국의 시기나 무질서에서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 위기의 시기에 필수적인 군주적 권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논고』 1권 18장).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으로 무질서와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다수인 인민의 힘에 의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논고』 1권 17장). 이는 마키아벨리가 공화국을 군주정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논고』 1권 58장에서 군주와 인민에 대한 비교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인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는 단시일 내에 엄청나게 성장하며, 군주가 계속 통치하는 도시보다 훨씬 많이 성장한다 [...] 이는 인민에 의한 정부가 군주에 의한 정부보다 낫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 만약 군주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

17) 『논고』 1권 10장, 37장, 3권 24장 참조.

동체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법제도를 설립하는 데 우월하다면, 인민은 이미 조직된 사물을 보존하는 데 우월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공동체를 창립한 사람들만큼이나 영광스런 업적을 성취한다(Machiavelli 2003, 252).

이는 공화국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인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화국을 주장한다. 이는 경륜과 능력을 지닌 귀족과 조국애를 지닌 다수의 인민들이 공존하는 공화국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자본을 더 많이 소유한 귀족들은 쉽게 좋은 시민이 되기 어렵다. 때문에 인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인민은 또한 방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시민들의 모범적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로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모범적 행위들을 통한 시민적 덕성들의 함양이 더 좋은 공화국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화국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힘의 함양이다. 이것이 바로 인문주의자들과 달리 힘을 지향했던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였다.

반면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은 시민들의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였다. 전쟁의 위협에 놓인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 인문주의자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공동체에 복무해야하는 시민의 의무를 강조했던 것이다. 여기에 공동체의 위상과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로마의 후손으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나아가 현재 피렌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강조하였다. 피렌체의 건축, 문화, 유적 등에 대한 강조는 바로 피렌체의 번영과 힘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지킬만한 값어치가 있는 조국임을 설파한 것이다. 문화의 융성은 정치적 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 이럴 때 자유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때문에 야만인들은 이해 못하는 자유와 문화가 피렌체에서 꽃피웠던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에게 피렌체는 내·외의 자유가 위태로웠다. 강대국의 전장이 된 이탈리아에서 피렌체는 그 독립이 불안했으며, 내부의 파벌 투쟁은 시민들의 자유도 위협했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역사를 재해석해 냈고 동시에 그것을 피렌체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고대 로마를 바라보는 핵심은 그 힘, 다시 말해 국력에 있었다. 로마가 어떻게 외침을 잘 극복해 내고 대제국을 건설해 낼 수 있었는지가 마키아벨리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강대국을 건설한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정으로 가면서 로마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파악한다. 이는 로마 시민들의 타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로마의 힘의 핵심인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sup>18)</sup>

18) 마키아벨리의 제국관에 대해서는 회른크비스트(2004) 참조.

마키아벨리가 바라보는 로마의 핵심은 자유에 있었다.<sup>19)</sup> 그 자유는 정치체제를 통해 수립되고 보장되었으며, 시민들의 행동 속에 각인되었다. 자유를 보장했던 정치체제는 바로 혼합정이었다(『논고』 1권 2장). 이 혼합정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귀족과 인민이 모두 그들의 공간 즉 원로원과 민회 혹은 호민관을 가지고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이다. 한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체제에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이 존재할 뿐 자유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배와 복종을 제어하기 위해 객관적인 법을 통한 통치가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법치를 위해서는 법 위에 권력자가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작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로마에서는 자유로운 고소·고발 및 탄핵 제도가 있었고, 인민을 대변하는 호민관 제도를 두었던 것이다(『논고』 1권 7장; 8장).

자유는 신분의 고착화와도 대비된다. 신분의 고착화는 권력의 독점화를 가져오기에 지배와 배제를 생산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자유는 시민들이 능력만 있으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서 찾고 있다. 능력이 계발될 수 있고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으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사회에서 더 많은 능력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마키아벨리는 로마를 정치체제라는 제도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시민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는 자유였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이러한 자유를 통해 로마에서 보고자 것은 그 힘 즉 국력이었다.<sup>20)</sup> 로마는 혼합정이기예 다수의 시민들이었던 인민들을 국가에 복무시킬 수 있었다. 귀족들은 권력욕을 억제하면서 그들의 경륜과 지식을 국가대사에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신분에 의한 차별이 없는 능력본위의 사회는 많은 인구를 유입시켰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늘어난 인구와 다수의 시민들의 능력 계발 그리고 절제와 역량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귀족들, 이들이 질서 잡힌 제도 하에서 훈련된 로마군으로 재탄생 되었고 그들은 무적의 군대가 되었던 것이다. 권력을 인민들과 나누고 인구증대를 초래한 것이 로마가 위대함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이다(Machiavelli 2003, 95). 이런 의미에서 마

19) 마키아벨리의 자유개념에 대해서는 콜리쉬(Colish 1971)와 스키너(1990) 등 참조.

20) 자유정체와 힘, 즉 국력과의 관계 속에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를 파악한 논의로는 김정희(2005) 참조.



키아벨리는 자유의 수호자를 인민에게 맡길 것을 권하고 있다.<sup>21)</sup> 귀족은 권력욕과 지배욕이 강하기에 자유보다는 군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귀족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배제는 독점에서 오고 독점은 방종을 낳고 방종은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유와 대비되는 방종과 독점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로마사에 대한 해석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로마는 공화정일 때 그 힘의 증가를 가져왔다. 자유 속에서 인민과 귀족은 합심하여 공동체에 복무했고, 이로 인해 로마는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영토를 확장했다. 자유로운 공동체는 타민족의 유입을 가속화 시켰고 그들을 로마 시민으로 수용 하였다. 이렇게 증가된 인구는 다시 군대로 편입되었고, 뛰어난 장군과 군인들로 인해 로마는 카르타고와 알프스 이북 지역까지 정복하여 더 이상 적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국력이 최고점에 이르고 문화가 만개되는 지점에서 마키아벨리는 타락과 몰락의 계기를 보았다.<sup>22)</sup> 이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인문주의자들과 달랐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문주의자들은 문화와 정치적 변영이 서로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피렌체의 위상을 선전하기 위한 인문주의자들의 전략이기도 하였다. 피렌체의 문화적 변영은 정치적 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피렌체의 나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시기에 살았던 마키아벨리는 달랐다. 문화의 융성이 나태를 가져오고 그것은 정치적 타락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는 정확히 로마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마키아벨리는 『논고』에서 로마의 성장과 쇠퇴를 공히 언급하고 있다. 인민과 귀족의 공치(共治)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로마의 혼합정이고 그것이 시민들의 힘을 모아 로마를 강하게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적이 없어지고 힘이 그 최고조에 달하자 로마 시민들은 오만과 나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능력 있는 이들을 행정관으로 선출하지 않고 권력과 돈으로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호감을 사려는 권력자들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는 법률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익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발의하고 민회에서 채택되어 공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는 이제 권력자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논고』 1권 18장). 시민들의 타락은 권력자들의 파당화와 사적인 권력경쟁을 강화하고 이는 그 승자에게 권력을 독점하도록 인도한다.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Octavianus)로 이어지는 공화

21) 인민에 중점을 두는 마키아벨리의 논의를 맥코믹(McCormick 2011)은 민주성의 강화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헨킨스(1996)도 참조.

22) 마키아벨리의 타락 개념에 대해서는 슈머(Shumer 1979), 보나테오(Bonadeo 1973) 등 참조.

정의 몰락의 역사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융성한 문화가 정치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관점은 부(富)에 대한 비판에서도 잘 나타난다. 마키아벨리는 부의 유입이 로마를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 국가들이 부에 의존해 전쟁 같은 외교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논고』 2권 30장).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유입된 부를 귀족과 인민들 간에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결과 농지법 개혁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당파간의 내전으로 격화되어 결국 공화정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논고』 1권 37장). 공화정 시기의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그 대가로 명예에 만족하였기에 청빈을 자랑으로 삼았었다. 국가는 부유하고 시민은 가난했기에 로마는 역량과 명예를 숭상했던 것이다(『논고』 3권 25장). 하지만 로마의 시민들이 부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명예보다는 부를,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했고 이는 공화정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피렌체와 이탈리아에서도 보였던 것이다. 로마가 제정 시기 다른 나라를 무기가 아닌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듯이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돈으로 전쟁을 무마시켰고 영토를 매입하였다(『논고』 2권 30장). 이는 자신을 방어할 자국 군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를 축적한 지배층 귀족들이 인민들에게 무기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귀족과 인민들 간의 신뢰와 유대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부의 과도한 불평등은 귀족과 인민 간의 권력분점을 방해하고 인민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어 권력의 독점을 부르게 된다. 공화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논고』 3권 24장)는 로마 공화국이 해체된 원인을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농지법 투쟁과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연장함으로써 권력이 독점되어 공공의 군대가 사병화된 것에서 찾고 있다. 부의 불균형과 권력의 불균형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것은 부와 권력의 독점과 관련되고 그것은 시민들을 공익 대신 사익추구로 이끌게 된다. 이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을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그 대가로 부와 권력을 하사 받는 신민으로 만들게 된다. 마키아벨리가 인문주의자들과 다르게 문화적 융성과 재부가 정치적 타락의 계기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던 시기가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가 몰락하고 있던 시기에 살았다. 반면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은 피렌체가 밀라노 등 이탈리아 내의 여러 경쟁국들의 위협을 극복하고 그 위세를 떨칠 때 활동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이 피렌체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라 그 몰락을 가져왔던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몰락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문제는 권력 혹은 힘이었다. 나약함을 극복하고 국력을 강화하

는 것이 문제였다. 피렌체 역사는 칭송보다는 비판의 대상이었고 로마는 동일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받아야 하는 비판적 분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 III. 결 론

르네상스기 피렌체의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목적으로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추구하는 공화주의 이념을 주장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목적은 서로 달랐다. 현실정치의 문제가 달랐기 때문이다. 피렌체의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은 프랑스의 교황군과 밀라노 공국에 맞서기 위해 피렌체의 자유와 이탈리아의 자유를 동일시한다. 여기에 고대 로마 공화정의 자유를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고전에 능했던 인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한다. 피렌체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을 고대 로마와 연결시켜 그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이탈리아 중부에서 그 위세를 떨치고 외세와 경쟁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피렌체는 그 자부심을 고대 로마와의 동일화를 통해 드러낸다. 문화의 융성과 부는 피렌체 정치력의 발현으로 파악하고 그 핵심을 자유를 담지하고 있는 공화정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시기는 달랐다. 피렌체와 이탈리아는 외세의 침입에 의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존립이 문제인 시기에 마키아벨리의 관심은 힘에 집중되었다. 그는 문제의 근원을 정치와 정체의 구성에 있다고 보았다. 귀족과 인민 간의 그리고 귀족들 간의 갈등이 첨예해 지면서 서로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게 된다. 이는 시민군의 구성 대신 귀족들의 세금에 의해 고용된 용병대에 국방을 맡기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광범위한 시민층의 정치참여와 그로 인한 권력분점이 제한되는 정치체제가 구성되자 피렌체는 외세의 침입에 맞서볼 엄두도 못내는 나약한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조국애를 강조한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처럼 윤리적 덕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수 없었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자 그들은 공공선에 복무할 의지 및 시민적 덕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는 윤리나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 힘 혹은 국력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체의 구성 즉 제도를 개혁해야 했다. 시민들 간의 소통 및 연대성이 사라진 피렌체는 더 이상

자유를 구현한 공화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이 동일시하고 당시에 피렌체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고대 로마의 잔재는 더 이상 없었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가 실현되어 강력한 힘을 생산해 내는 로마적 공화정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공화정의 건설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따른 권력분점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그들에게 ‘공존’은 서로 다른 계층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 공동체에 복무하는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국력은 이렇게 연대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활력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에는 자유가 있다. 마키아벨리에게 ‘공화’라는 문제의식은 ‘공존’이나 ‘통합’이 지고의 가치라는 이상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나 ‘활력’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자공심과 자부심을 표출하고자 했던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이 자유와 조국애라는 윤리적 덕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마키아벨리는 윤리가 아니라 현실의 힘이 중요했다. 번영은 부패와 몰락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는 도덕이나 이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현실 제도 속의 힘인 것이다. 위기 속에서 피렌체의 공화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좌우하는 현실의 힘이자 권력이라는 정치의 핵심을 보게 된 것이다.

투고일: 2015년 4월 26일

심사일: 2015년 5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27일

## 참고문헌

- 김경희. 2004. “로마의 위대한 힘(virtus romana)’ 개념을 통해 본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인문주의자들의 정치사상: 페트라르카와 살루타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3집 1호, 231-255.
- \_\_\_\_\_. 2005. “비르투 로마나(virtu romana)를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25-44.
- \_\_\_\_\_. 2013. “레오나르도 브루니의 혼합정체론 연구.” 『사회과학연구』 26집 1호, 75-96.

- 진원숙. 2005. 『시민적 휴머니즘과 인간·역사·과학』. 서울: 야스미디어.
- Baron, Hans. 1966. *The Crisis of the Early Italian Renaiss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In Search of Florentine Civic Humanism, Essays on the Transition from Medieval to Modern Thought* I,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lack, Robert. 1986. “The political thought of the florentine chancellors.” *The Historical Journal* 29, No 4. 991-1003.
- Bonadeo, Alfredo. 1973. *Corruption, conflict, and power in the works and times of Niccolo Machiavelli*.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uni, Leonardo. 1972. “Comparison of Dante and Petrarch.” In David Thompson and Alan F. Nagel, trs. and eds. *The Three Crowns of Florence: Humanist assessments of Dante, Petrarca and Boccaccio*, 81-83. New York: Harper & Low.
- \_\_\_\_\_. 1987. “Oration for the Funeral of Nanni Strozzi.” In Gordon Griffiths, James Hankins, and David Thompson, trs. and Intro. *The Humanism of Leonardo Bruni. Selected Texts*. translations and Introductions, 121-126. Binghamton, N.Y.: ACMRS Publications.
- \_\_\_\_\_ 저. 임병철 역. 2002. 『피렌체 찬가』. 서울: 책세상.
- Buck, August. 1965. “Matteo Palmieri als Repräsentant des Florentiner Bürgerhumanismus.” *Archiv für Kulturgeschichte* 47, 77-95.
- \_\_\_\_\_. 1987. *Humanismus. Seine europäische Entwicklung in Dokumenten und Darstellungen*.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 Burckhardt, Jacob 저. 안인희 옮김. 1999.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서울: 푸른숲.
- Colish, Marcia L. 1971. “The Idea of Liberty in Machiavelli.”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2, 323-350.
- De Rosa, Daniela. 1980. *Coluccio Salutati: il cancelliere e il pensatore politico*. Florenz: La Nuova Italia Editrice.
- Hankins, James. 1996. “Humanism and the origi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In Jill Kraye,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Renaissance Humanism*, 118-1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ed. 2000. *Renaissance Civic Humanism: Reappraisals and Refle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de, Peter. 1965. “Politik und Rhetorik in Florenz am Vorabend der Renaissance. Die ideologische Rechtfertigung der Florentiner Außenpolitik durch Coluccio Salutati.”

- Archiv für Kulturgeschichte* 47, 141-220.
- Hörnqvist, Mikael. 2000. "The two myths of civic humanism." In James Hankins, ed. *Renaissance Civic Humanism: Reappraisals and Reflections*, 105-14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Machiavelli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n, David. 1995. "Machiavelli, italianità and the French invasion of 1494." In David Abulafia, ed. *The French Descent into Renaissance Italy 1494-95: Antecedents and Effects*, 355-369. Aldershot, Hampshire: Variorum.
- Machiavelli, Niccolò. Laura F. Banfield and Harvey C. Mansfield, Jr., trs. 1988. *Florentine Histo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저. 강정인·안선재 역. 2003. 『로마사 논고』, 서울: 한길사
- McCormick, John P. 2011. *Machiavellian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ünkler, Herfried. 1982. *Machiavelli. Die Begründung des politischen Denkens der Neuzeit aus der Krise der Republik Florenz*. Frankfurt/M: Fischer Verlag.
- \_\_\_\_\_. 1993. "Die politische Ideen des Humanismus." In Iring Fetscher and Herfried Münkler, hrsg. *Pipers Handbuch der Politischen Ideen* Bd. 2, 553-614. München: Piper Verlag.
- \_\_\_\_\_. 1999. "Republikanismus in der italienischen Renaissance." In Peter Blickle and Rupert Moser, hrsg. *Traditionen der Republik: Wege zur Demokratie*, 41-71. Bern: Peter Lang.
- Najemy, John M. 2007. "Political Ideas." In Guido Ruggiero, ed. *A Companion to the World of The Renaissance*, 384-402.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Palmieri, Matteo. 1982. *Vita Civile*. A cura di Gino Belloni. Firenze: Sansoni Editrice.
- Rubinstein, Nicolai. 1982. "Political Theories in the Renaissance." In A. Chatel et al., eds. *The Renaissance: Essays in Interpretation*, 154-188. London: Methuen.
- \_\_\_\_\_. 1986. "Florentina Libertas." *Rinascimento* 37, 3-21.
- Salutati, Coluccio. 2014a. "Selected State Letters." In Rolf Bagemihl, tr. and Stefano U. Baldassari, ed. *Political Writings*, 2-6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4b. "On Tyranny." In Rolf Bagemihl, tr. and Stefano U. Baldassari, ed. *Political Writings*, 64-14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4c. "Reply to a Slandering Detractor." In Rolf Bagemihl, tr. and Stefano U. Baldassari, ed. *Political Writings*, 174-39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umer, S. M. 1979. "Machiavelli: Republican Politics and Its Corruption." *Political Theory* 7. No. 1, 5-34
- Siegel, Jerrold E., 1966. "Civic Humanism or Ciceronian Rhetoric?." *Past and Present* 34, 3-48.
- Skinner, Quentin. 1990. "The republican idea of political liberty." In G. Bock, Q. Skinner and M. Viroli, eds. *Machiavelli and Republicanism*, 293-30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저, 박동천 역, 2004.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1권, 파주: 한길사
- Witt, Ronald. W. 1969a. "Coluccio Salutati and the origins of the Florence." *Pensiero Politico* 2, 161-172.
- \_\_\_\_\_. 1969b. "The De tyranno and Coluccio Salutati's view of politics and Roman history." *Nuova rivista storica* 53, 434-474.

ABSTRACT

---

## A Study on the Florentine Republicanism in the Italian Renaissance: From Civic Humanism to Realistic Republicanism

Kyung-Hee Kim |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republican discourses from Salutati to Machiavelli, which will grasp the change from civic humanism to realistic republicanism. Civic humanists overcame the foreign invasion in the flourishing era of Florence. In this process, they justified the Florentine republic with its identification of ancient Rome. Republican citizens are supposed to have a priority for the common good rather than their own private interest, and are described as having a duty to serve the country. They highlighted the civic and moral virtues more than the political system. But Machiavelli worried about the weakness of the state by invasions of great powers and endless changes of regime. The political failure led him to reflect on the significance of the political system. Machiavelli thought over the idea of freedom as the heart of the republic in terms of power and how the republic should be constructed. Machiavelli's republican realism was born by experiencing the weakness and limits of civic republicanism in crisis.

**Keywords:** Renaissance republicanism, civic humanism, Salutati, Bruni, Machiavelli